

[위피백과]

수능 국어 - 이십세기(20세기)

: 1994~2000 수능 기출 선별

<1주차 해설지>

[1~5]

최근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물질적 부를 향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자원의 고갈)과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출발한 과학 문명의 **물질주의적 사고 방식**이 무분별한 자연의 이용과 개발을 재촉하여 오늘날과 같은 생태계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대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고 방식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싹트고,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시작된 것이 **신과학 운동**이다.

환경 오염과 같은 내용들을 시작으로 화제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제를 '환경오염'으로 잡으면 안됩니다. 주의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경오염의 문제를 인식하고 '사고를 전환'한다는 점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을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이를 바꾸기 위해 신과학 운동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1문단에서 찾을 수 있는 키워드는 그럼 기계론적 세계관, 신과학 운동 정도겠네요. 화제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둘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군요.

전 지구적 문제
- 원인 : 기계론적 세계관 : 물질주의적 사고방식
-> 신과학 운동 등장(사고 전환)

주목해야할 점 : 올바른 화제 찾기

신과학 운동의 또 다른 뿌리는 20세기의 **현대 물리학**과 관련된다. **물질의 궁극적인 구성 단위**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던 물리학자들은 분자, 원자를 거쳐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 마침내 **양자역학**이라는 현대 물리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하이젠베르크**는 입자의 속도와 위치가 동시에 정확히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을 **불확정성의 원리**로 설명함으로써 양자역학의 토대를 확립하였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물리적 현상은 **인과율에 따른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만 확률적 예측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은 세기적인 대논쟁을 벌였다. 그 때 **아인슈타인**은 자연은 아름다운 **인과율에 따라 움직이지만 인간의 머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양자 역학은 계속 발달하여 현대 물리학의 정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로써 (**신과학 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뉴턴 이래 300 년간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었던 결정론적 인과율에 바탕을 둔 기계론적 세계관은 존립할 기반을 상실**)하였다.

앞에서 잡았던 키워드대로 신과학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네요. 1문단에서 스스로 해당 키워드들을 캐치하셨다면 당신은 국어황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캐치하지 못했더라도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계속 보다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금방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십새키 많이 풀어주세요
아무튼 신과학 운동과 현대물리학(양자역학)을 설명하고 그것을 기계론적 세계관과 대비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쉽네요.

내용정리 합시다.

신과학 운동 : 현대물리학(양자역학)

현대 물리학 : 물질의 궁극적 구성단위 -> 양자역학
- 하이젠베르크 : 불확정성의 원리(위치, 속도 동시 예측 X)
-> 양자역학 : 확률적 예측만 가능(인과율, 인과적 예측 X)
- 아인슈타인 : 인과율 존재 인정 - '신은 ~ 않는다'
- 양자역학 발전 -> 신과학의 관점 떡상, 기계론적 관점 떡락

주목해야할 점 :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전개

지금까지 과학은 **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모든 존재를 기계와 같은 물질 구조로 보고, **환원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으로 기계의 최소 부품간의 상호 인과 관계를 밝혀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신과학 운동**에서는 **전체가 단순한 부분의 합계 이상**이라고 믿고 **부분과 전체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분석이나 환원적 접근법 대신에 전체를 파악하는 **전일적(全一的)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을 사용하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지향한다.

기계론적 세계관과 신과학 운동의 대조점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과학 운동을 유기체적 세계관이라고 정의하면서 기계론적 세계관과 대조 구도를 더욱 뚜렷하게 해주네요. 기계론적 세계관, 신과학 운동이라는 키워드만 잘 잡았다면 쉽게 문제가 풀리셨을 겁니다.

기계론적 세계관 : 물질 구조, 환원적, 분석적 방법
= 부품 간 상호 인과관계 -> 전체 이해

신과학 운동(유기체적 세계관) : 전체 > 부분의 합, 부분과 전체 사이의 상호작용, 전일적, 종합적 접근법

주목해야할 점 : 대비되는 두 개념의 비교 및 정리

※ 조금 어렵지만, 1문단에서 키워드를 잡고 화제를 잡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에서 떠올리기 힘든 수준이기도 하기 때문에 넘기셔도 됩니다.

1문단에서, 기계론적 세계관의 대안으로 신과학 운동이 등장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기계론적 세계관 -> 문제 인식 -> 신과학 운동(대안)의 과정인데, 이는 시간의 흐름과 대체(변화)과정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계론적 세계관, 신과학 운동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낸 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론의 대체과정이라는 점까지 파악해서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신과학 운동의 변화 및 차이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 라고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실전에서 저 정도의 사고과정을 거치기는 어렵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는 바입니다.

1. ②

기계론적 사고가 물질적인 사고방식을 만들어냈고, 물질적인 사고방식이 전 지구적 문제를 야기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문제라는 결과의 발생을 '사고방식'이라는 원인에서 찾고 있네요.

고로 인과 관계 정답은 2번입니다.

2. ③

㉠은 결국 인과율을 긍정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인과율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말입니다.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익숙한 문제 유형입니다. 속으면 안돼요.

① 앞에서 말했듯이, ㉠은 결국 인과율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견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저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인슈타인은 전지전능한 신을 믿는 유신론자가 됩니다.

3. ⑤

신과학 운동의 특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 ∑부분', '전체-부분 상호관계'입니다.

고로, 민족사라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세계사라는 전체적 맥락이 필요하다는 5번이 정답입니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민족사와 세계사의 맥락)를 만족하네요. 또, 단순한 민족사의 결합 이상의 세계사의 맥락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① 전체 = 부분의 합이네요.

② ?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부분을 알아야한다..? 이상하죠.

③, ④ 동문서답

4. ④

현대 문명의 위기는 지문에 제시된 내용과 매칭해보면 생태계 위기 등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보면 기계론적 세계관이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낳았고,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무분별한 자연이용, 개발을 재촉해서 생태계 위기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즉, 현대적 위기를 야기한 근본적인 문제는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① 이걸 2차적인 원인입니다.

5. ②

A를 B와 같은 구조로 '간주하고' 쉽네요.

어휘문제는 직접 갖다가 넣어서 구분해보면 십중팔구는 풀립니다.

아 물론 구비, 겸비는 예외일 수도...

[6~9]

6. ①

(가) : 산새, (나) : 병든 나무, (다) : 폭포 등 자연물을 통해서 모두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7. ③

(가)의 3연 마지막 행을 보면 '십 오년 정분을 못 잊겠네'라고 합니다. 미련, 그리움 이런 정서겠지요?. 최소한 말 그대로 '못 잊'는 상황이라는 것만 캐치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그대로 대상을 못 잊고 있는 선지를 찾으면 되겠네요.

3번 한 번 봅시다.

'아리랑 고개는 탄식의 고개 /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오는 고개' 라는 대목을 보면, 뭔가 가기싫어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한 번 넘어가면 다시는 못오기 때문에 아리랑 고개를 탄식의 고개라고 비유하겠네요.

고로 고개를 넘어가기 싫다. 현재 떠나는 이 장소에 대한 미련과 같은 '못 잊'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① 청산이 좋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② 청산 가자고 난리를 칩니다.

④ ? 바로 지읍시다

⑤ 그냥 혼자래요. 외로움의 정서라고 볼 수 있는데 (가)의 3연에 외로움은 없습니다.

8. ③

1연에서는 자꾸 어디로 간다고 합니다. 왜 가는지, 가서 뭐하는지 살펴봐야겠네요.

2연에서 뭐가 작열하고 알라의 신만이 고민하고 방황한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방황한다고 하네요. 그럼 왜 가는지 알아봅시다.

3연에서 '호올로 서면 / 운명처럼 '나'와 대면케 될'거라고 이야기하네요. '나'와 대면하고 방황한다? 자아성찰로 볼 수 있습니다. 고로 3번이네요.

9. ③

'거기'는 마찬가지로, '알라신만이 ~ 방황하는' 곳이네요. 알라신 혼자만 있어요. 뭔가 행한? 그런 공간이죠.

이를 통해서 보면, (다)의 '밤'은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알라신만이 방황하고 있는 '거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겠네요.

역사적 시대 구분의 단위로서 현대라고 할 때에는 보통 (제 1차 세계 대전과 1917년의 러시아 혁명 발발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시기)를 지칭한다. 이 시기의 사회 변동의 추이나 그 속에서 전개된 대사건들은 이전 시기와는 분명히 다른 독특한 면모를 갖고 있다. 그 특징들 속에서 우리는 현대의 위상과 의미를 발견해 낼 수 있다. 우선 이 시기에는 과시즘과 나치즘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거대한 관료 조직 및 막강한 국가 체제가 개인과 사회 집단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대중을 조작하여 그 위에 얼마든지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전체주의 체제의 부정적 유산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세계의 여러 나라로 약간씩 형태를 달리하면서 전승되어 갔다. 어떤 의미에서 현대 사회론은 이러한 전체주의 체제의 발흥 원인과 그 사회적 결과를 대중 사회의 출현과 관련시켜 보는 데서 싹이 났다고도 볼 수 있다.

화제에 대한 감을 잡기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미판식이네요. 현대 사회론을 이야기하기 위해, 현대를 정의하고, 전체주의 등을 풀어줍니다.

이거 파악하고 마지막 줄에 주목해봅시다. 키워드는 '현대 사회론', 그리고 화제까지 언급해주고 있어요. 화제는 '현대에 대한 현대 사회론의 관점 : 전체주의와 대중 사회의 관계'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봅시다.

그런데 아마 안 좋게 볼 것 같습니다. 부정적 유산이 계속 전승된다고 했으니까요!

조금 더 나아가봅시다. 현대 사회론의 관점 : 전체주의와 대중 사회의 관계'라는 화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 역시 실전에서 바로 떠올리기는 힘든 사고과정입니다. 그러나 공부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죠. 키워드와 화제를 잡는 연습이니까요.

현대 : 1차 세계대전 ~ 현재
 - 사회변동, 대사건 특이함 -> 현대의 위상, 의미 발견 가능
 - 과시즘, 나치즘 = 전체주의 = 거대 관료조직, 국가 체제가 군림 -> 전승
 - 현대 사회론 : 전체주의 체제 발흥 원인, 사회적 결과 - 대중 사회와 연결

주목해야할 점 : 키워드, 화제 찾기

제 2차 세계 대전 후 과학 기술의 경이로운 발달 및 생산력의 증대에 힘입어 자본주의 체제는 상대적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산업화의 단계를 훨씬 뛰어넘은 탈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운위되기도 하였다. 사회주의권은 그들 나름대로 중앙 집중적 계획 경제와 생산 수단의 국유화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다. 제 3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경제 발전을 발판삼아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 체제의 변혁을 달성키 위해 몸부림쳐 왔다. 그리하여 지난 반 세기의 세계사의 역정은 이들 세계가 엮어내는 공생과 갈등의 대파노라마였다 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제 2차 세계 대전 후 현대 사회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관련하여 총 3가지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2차 대전 후 : 과학 기술 발전 -> 자본주의
 - 선진 자본주의 : 탈산업사회, 이데올로기 X
 - 사회주의권 : 자본주의 모순 극복 노력 - 중앙 집중적 계획 경제, 생산 수단 국유화
 - 제 3세계 : 정치적 민주화, 사회 체제 변혁 = 공생과 갈등
 대중 사회 즉,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각종 노력들이네요.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현대 사회의 추이를 되돌아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는 여전히 부와 불평등과 독점의 폐허가 불식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주의권의 거대한 실험은 결국 정치·경제·사회적 층위간의 불균형과 모순으로 인하여 근래에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가져왔다. 그런가 하면 중속 탈피와 민족적 자립을 이룩하려는 제 3 세계권의 장래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그리고 어느 권역이건 사회 전반의 관료 조직화와 대중화의 물결 속에 인간 주체성의 상실 및 인간 소외가 현대 사회의 주된 특질로서 자리잡고 있다.

오늘의 시점에서 현대 사회(=자본주의 사회)를 고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의 부정적 유산'이 여전히 남아있군요. 1문단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연결된다는 느낌 받으시나요? 지문은 항상 일정한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해요.

오늘날 : 자본주의 사회 = 불평등, 독점 O, 불균형, 모순 O
 -> 사회주의 체제 붕괴, 제 3세계도 미래 밝지 X
 ∴ 관료 조직화 - 대중화 속 인간 주체성 상실, 인간 소외 발생 (부정적)

주목해야할 점 : 화제와의 연관성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구조 기능주의나 마르크스주의를 막론하고 거대 이론의 설명력이나 예측력은 빛이 바랄 뿐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근대 혹은 현대가 인류에게 가한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자는 탈현대(포스트모던)의 구호가 고창되면서, 지적·사상적인 방향의 징표가 두드러져 보이기도 한다. 말하자면 현대성의 총체적 위기라는 진단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약간 뜬금없이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웬 구조 기능주의에 마르크스? 하지만 역시나, 현대 사회를 (부정적으로)고찰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화제로 연결됩니다. 잘 기억해둡시다! 원인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전체주의 사회가 나오고, 관료 조직화 -> 대중화(대중 사회)로 변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요소들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역시나 현대성의 총체적 위기라고 하며 현대사회가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한 현대 사회론이 결국 '현대 사회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총체적 위기'라고 말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한

다는 점을 못박아주고 있습니다.

잘 캐치합시다.

그렇다면 현대인이 지향해야 할 행로와 목표는 어디에도 없는 것인가? 말 그대로 20 세기의 황혼에서 세기말적 침울과 절망의 분위기 속에 주저앉고 말 것인가? 다시 말해, 현대 사회의 미래전망은 정녕 닫혀 있기만 한 것인가?

현실이 워낙 개판이다 보니 '정녕 희망은 없는가!'라는 느낌으로 물음을 던지고 있네요. 부정적인 현대 사회를 드러내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문의 화제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숨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숨어있는 화제 혹은 키워드의 자그마한 가닥이라도 잡지 못하면 글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숨어 있는 화제를 찾는 연습을 하기에 좋은 지문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결국 현대 사회가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 원인이 전체주의이고, 그럼 이 전체주의는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걸 살피는 겁니다.

10. ⑤

3문단 마지막 줄에서

'어느 권역이건 사회 전반의 관료 조직화와 ~ 자리잡고 있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관료 조직화가 있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② 현대 사회를 부정적으로 '전망'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지금 상태가 전체주의 잔재로 부정적이다. 라는 현재 상황 고찰 정도죠. 마지막 문단에서는 현대 사회의 미래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있죠. 즉, 현재 상황이 이렇다. 미래는 진짜 노답인 거냐? 이런 식으로요. 전망이 아니란 뜻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 꼬라지를 보니 영 말이 아니다. 까지만 있지 '고로 미래도 노답일거야!' 라는 등의 미래를 제시하진 않아요.

11. ⑤

결국 화제, 키워드에 대해서 묻는 거죠. 본문에서 현대 사회론은 현대 사회를 문제가 있다고 보았죠. '현대성의 총체적 위기'라고 할 정도로요. 고로 이런 말이 그대로 박혀있는 5번이 정답입니다.

결과적으로 키워드를 묻고, 그 키워드에 관한 화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지문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를 찾으란 거죠.

12. ①

어휘는 스스로 해봅시다.

[13~16]

13. ⑤

(가)는 '임'이라는 대상을 노래하는데, 그는 평화를 좋아하고 자비를 좋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나)는 마찬가지로 '당신'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네요. 그리고 사람이 조바심쳐도 굳게 닫힌 돌문 등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화해(화합)의 세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는 '그'라는 대상을 노래합니다. 역시나 뭐 '순리로 합칠 날' 이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지양하고 화합, 화해를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네요.

※ (나)는 그냥 기다리는 것 아니냐? 왜 화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화해를 단순히 싸우고 푸는 그런 화해가 아닌, 대상과의 갈등이 없는 상태, 나아가 화합하는 상태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고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어루만질 때 사라지겠다는 구절은, 당신이라는 대상과 만나 '화해'한다면(화합, 갈등 X) 그 때 기다림을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고로 대상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 대상과 다시 만나길 바란다는 것은 화해의 세계를 동경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④ 사랑의 성취를 낙관한다? 사랑의 성취까지는 뭐 다들 입을 그리워하니 그렇다 치더라도, 낙관은 틀렸습니다. 나는 임과의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러지는 않죠?

14. ④

'가치 = 무가치'일까요?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으소서 에서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으로 치환해봅시다.

그럼 무가치한 것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겠죠? 천국의 사랑을 받으니까요!

그럼 아무튼 가치 없는 것 ->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할텐데, 이걸 엄연히 가치와 무가치를 구분하는 거죠.

무가치를, 변하기 전인 뽕나무로 간주하고, 가치를 바뀐 후의 대상인 산호로 간주해봅시다.

뽕나무에서 산호가 되도록 사랑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럼, 가치 없는 것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네요.

이건 결국 가치와 무가치를 구분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될 수 있나요? ㅋㅋ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화자는 그걸 바라고 있죠. 그렇게 되도록 사랑을 받아라! 합니다. 따라서 화자의 염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③ 2번이랑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으라 하니까요. 고로 충분히 해석의 여지가 있는 선지입니다.

⑤ 같은 맥락입니다. 천국의 사랑을 받으면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군요.

문학을 풀 때 텍스트 그 자체로만 보고 풀린다는 것을 다시금 체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내용이 그렇게 쉽지도 않

죠. 하지만 풀이는 본문 내의 텍스트로 전~부 풀립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을 포함해서 그 전후 구절까지 살펴보면 충분히 해결 가능했습니다.

※ 문학에서 <보기>없이 해석할 때는 텍스트 그 자체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그 때 중요한 것은 해석하는 대목과 그 대목을 둘러싼 맥락입니다. '맥락 속에서 자연스러운가?' 이걸 따지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5. ㉡

'~ 아실 이'를 위해서 밑줄 친 것들을 고이 감추었다가 내어준다고 합니다. 그럼 대상을 위해서 간직하는 시어가 정답이 되겠네요.

쫓볼도 '당신'이 오는 날까지 간직했다고 합니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네요.

(역시나 텍스트 자체만 보고 풀립니다)

16. ㉤

나머지는 전부 '나'인데, 정한 몸알은 '그'를 지칭합니다.

㉣ 쫓나풀도 결국 '나'가 되면 안되는 모습이기예, 지시 대상은 '나'입니다.